

IBKS Spot Comment

제약/바이오

정이수, CFA

02) 6915-5677

[제약/바이오]

로슈, 89bio 인수로 MASH 파이프라인 경쟁 가속화

What's New:

로슈(Roche)는 9월 18일(현지 시간) 미국 바이오텍 89bio를 최대 35억 달러(조건부 가치 권리 11억 달러 포함)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89bio의 주력 파이프라인은 FGF21 작용제 pegozafermin으로 F2/F3 MASH(대사이상지방간염) 및 F4(간경변) MASH 임상 3상을 각각 진행 중이다. 이번 거래는 올해 들어 세 번째 MASH 파이프라인 관련 계약으로, 2월 일라이 릴리가 올릭스로부터 6억 3천만 달러 규모의 siRNA 기반 MASH 파이프라인을 도입한 데 이어, 5월 GSK가 보스턴 파마슈티컬스로부터 FGF21 작용제 Efimosfermin alfa를 20억 달러에 확보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이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MASH 파이프라인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alysis:

현재 FDA로부터 승인된 MASH 치료제는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단 두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2030년 미국 내 환자 수가 2,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규모도 현재 10억 달러에서 364억 달러로 약 36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ASH는 발병 원인과 질환 진행 속도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군 및 섬유화 단계별로 다양한 기전의 치료제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상 2상 단계에서 MASH 해소와 섬유화 개선을 동시에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상, 임상 3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시장에서 더욱 높게 평가된다. 로슈의 인수 발표 직후 Akero Therapeutics(+9.53%), Altimmune(+8.40%), Zealand Pharma(+7.42%), 한미약품(+8.42%) 등 주요 MASH 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So what:

이번 인수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MASH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한미약품의 MASH 파이프라인은 올해 12월 임상 2상 종료를 앞두고 있어 국내 기업 중 가장 앞서 있다. 한미약품의 에피노페그듀타이드는 GLP-1/GCG 이중 작용제로, 파트너사 머크가 F2/F3 MASH 환자 대상으로 위고비와 Head-to-Head 비교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디앤디파마텍은 2026년 상반기 MASLD(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H 임상 2상 종료를, 올릭스는 올해 12월 건강한 사람/MASLD 임상 1상 종료를 앞두고 있어 향후 결과 발표 시 파이프라인 재평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상세한 MASH 치료제 시장과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은 9월 2일 발간한 <살이 찌니 간도 크네>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